

<http://doi.org/10.5253/kpac.2023.52.6>

일기 소재(所載) 한시 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미선*

차 례

1. 머리말
2. 일기 소재 한시 연구의 현황
 - 1) 발표 시기순 연구 현황
 - 2) 대상 일기와 연구 내용
3. 일기 소재 한시 연구의 과제
4. 맺음말

| 국문초록 |

본 논문에서는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그 과제를 제시하여, 일기 소재 한시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으며, 17종의 일기에 대한 19편의 논문을 확인하였다. 2000년대 2편, 2010년대 10편, 2023년 5월까지인 2020년대 7편으로 발표 논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먼저 조선시대 일기 중 전쟁일기, 생활일기, 기행일기, 유배일기, 관직일기, 강학일기 등 다양한 일기에 담긴 한시 및 그에 대한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던 격동적인 시기 일기 속 저자의 내면을 담은 한시 및 그에 대한 연구를 볼 수 있었다.

일기 소재 한시 연구는 일기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성 증대에 기여한다. 그런데 연구 대상이 된 일기는 전체 일기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 소재 한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로, 일기 소재 한시 연구의 과제를 정리하였다. 첫째, 일기 소재 한시에

*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강사

대한 체계적인 현황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일기 관련 DB에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일기 소재 한시 관련 주제별 학술대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핵심어 : 일기, 한시, 전쟁일기, 생활일기, 기행일기, 유배일기, 관직일기, 강학일기, 일기 DB

1. 머리말

일기는 저자의 직접 체험을 기록한 것으로, 당대의 삶과 문화, 저자의 감정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사학, 철학, 민속학, 문화콘텐츠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 연구의 중요 토대 자료가 된다. 이러한 일기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호남지역·경상지역 등 지역별 일기에 대한 조사·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¹⁾ 기행일기·사행일기·상소일기·유배일기·장례일기 등 일기 장르별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²⁾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에는 2023년 6월 현재 954종 일기에 대한 DB가 구축되어 있으며,³⁾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누리집 ‘스토리테마파크 - 일기와생활’에는 일기에서 뽑은 다양한 이

- 1) 호남지역 일기에 대해서는 ‘호남기록문화유산(<http://memoryhonam.jnu.ac.kr/>)’ 내 ‘일기자료’ 분야에 230편 일기에 대한 DB가 구축되어 있으며, 호남문집 소재 일기 565편을 연구한 김미선의 저서 『호남문집 所載 일기류 자료』(경인문화사, 2018)가 출간되었다. 경상지역 일기에 대해서는 경북대학교 연구팀에 의해 ‘경상도 일기자료 목록 및 해제’ 연구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2019년 한국학진흥사업)이 진행되었다.
- 2) 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 『국어문학』 71, 국어문화회, 2019; 김미선,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과 가치」, 『한국민족문화』 7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임기중, 『연행록 연구』, 일지사, 2002; 정영문, 『朝鮮時代 通信使文學 研究』, 지식과교양, 2011; 조수미, 「조선후기 한글 유배일기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최은주, 「조선시대 상소 일기자료의 실상과 가치」, 『석당논총』 34,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8; 최은주,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유배일기 자료의 현황과 활용 가치」, 『안동학』 19, 한국국학진흥원, 2020 등. 이의 조수미에 의해 유배일기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연구사업 ‘조선의 유배일기를 읽다 - 위기에 처한 가족과 가문’(한국연구재단 2017년 인문사회분야 저술출판지원사업)이 진행되었다.
- 3)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http://diary.ugyo.net/>). ‘저자별’ 부분에는 954종, ‘서명별’ 부분에는 804종의 일기가 확인된다.

야기 소재들이 현대적으로 읽기 쉽게 제공되고 있는 등⁴⁾ 일기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형식적 제한이 적고 분량이 자유로운 일기 속에는 한시, 시조, 서간, 제문 등 저자가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문학 작품이 삽입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일기가 문학 작품의 보고(寶庫)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문학 작품을 일기를 통해 발굴할 수가 있다. 더구나 일기 속에 문학 작품이 수록된 경우 작품이 쓰인 구체적인 상황까지 서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작품 창작 배경까지 함께 볼 수가 있어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일기 내에 수록된 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일부 개별 작품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만 이루어져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일기 소재 문학 작품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것은 한시이다. 한문 글 쓰기, 한시 짓기가 생활화 되었던 선조들은 자주 한시를 지었고, 한문일기를 쓰면서 한시가 자연스럽게 삽입된 경우가 많았다. 한시가 일기 속에 수록된 경우 가장 큰 특징은 당시의 구체적 작시 상황을 한시와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집의 경우 한시와 산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같은 상황에서 쓴 작품이더라도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일기 속에 한시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서술을 통해 한시 향유 과정, 한시가 창작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한시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일기 속에 수록되어 현전하는 한시 중에는 문집이나 시집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도 많아, 알려지지 않은 한시를 발굴할 수가 있다. 특히 문집이 남아있지 않은 저자들의 경우, 일기가 한시를 전하는 유의미한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 일기를 쓰면서 함께 수창한 다른 사람의 한시를 수록하기도 하므로, 일기 저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한시를 발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그 과제를 제시하여, 일기 소재 한시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4) 스토리테마파크 - 일기와생활(<http://story.ugyo.net/>).

2. 일기 소재 한시 연구의 현황

1) 발표 시기순 연구 현황

본 장에서는 일기 소재 한시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연구 성과는 주로 소논문의 형식으로 발표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의 연구 성과들이 확인된다.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연구 성과의 서지 사항을 발표 시기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⁵⁾

- 이병찬·박우훈, 「대마도일기 수창시 연구 - 최익현·임병찬·홍주의사 구인의 수창시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4, 어문연구학회, 2004.
- 박준원, 「『감담일기(坎窞日記)』 연구」,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채지수, 「이경석(李景奭)의 『풍악록(楓嶽錄)』 삼입시의 두 가지 양상」, 『한문고전연구』 23, 한국한문고전학회, 2011.
- 김윤규, 「20세기 초 만주 망명 지식인 한시(漢詩)의 문학사적 성격 - 『백하일기(白下日記)』 소재 시의 경우」, 『국어교육연구』 50, 국어교육학회, 2012.
- 이영숙, 「해기옹(海寄翁) 김령(金樞)의 한시연구 - 『간정일록(艱貞日錄)』의 유배시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48,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5.
- _____, 「해기옹(海寄翁) 김령(金樞)의 한시에 나타난 단성농민항쟁 - 108를시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68, 동방한문학회, 2016.
- 정은진, 「『청대일기』 소재 청대 권상일의 한시와 그 성격」, 『민족문화논총』 62, 민족문화연구소, 2016.
- 김소연, 「『자암일록(紫巖日錄)』 삼입시에 나타난 강학문화(講學文化)와 그 의미」,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문희순, 「경희(景晦) 김영근(金永根)의 한시연구 - 강진에서 간도까지 <원유일

5) 각 논문의 한자 병기 방식이 다양한데, 본 논문의 본문에서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쓰는 방식으로 통일시켰고, 각주와 참고문헌에서는 한자만 쓰는 방식으로 통일시켰다. 작품 표시 부호는 서지 사항 정리 부분에서는 원래 논문 제목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기 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일기 작품 제목을 언급할 때는 『』 부호로 통일시켰다. 박규택 논문 제목의 ‘오행묵’은 ‘오형묵’의 오타로 보이나, 원래 제목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 록(遠遊日錄)>을 중심으로, 『한국시기문화연구』 39, 한국시기문화학회, 2017.
- 박규택, 「오행목의 『고성총쇄록』 한시(漢詩)에 나타난 날씨의 정치생태학적 고찰」, 『코기토』 86,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 정환국, 「18세기 대구사족 최흥원(崔興遠)의 시세계와 내면 - 『역중일기(曆中日記)』 내 한시(漢詩)와 감회표출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38, 한국국학진흥원, 2019.
- 조용호, 「정유재란(丁酉再亂) 포로 실기 속 한시에 투영된 화자 의식」, 『한국고전연구』 4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 김남규, 「『자인총쇄록(慈仁叢瑣錄)』 소재 오행목 한시 연구」, 『민족문화논총』 75, 민족문화연구소, 2020.
- 이미진, 「『모당일기(慕堂日記)』를 통해 본 모당(慕堂) 손처눌(孫處訥)의 한시 짓기와 그 의미」, 『국학연구』 44, 한국국학진흥원, 2021.
- 김미선, 「『서행록(西行錄)』 소재(所載) 한시의 현황과 특징」, 『한국시기문화연구』 50, 한국시기문화학회, 2022.
- _____, 「소승규 <유봉래산일기> 소재(所載) 한시 연구」, 『동아인문학』 60, 동아인문학회, 2022.
- 한길로, 「서주(西洲) 김사진(金思鎭)의 한시에 나타난 중국 체험의 시적 정취 - 『요행일기(遼行日記)』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90,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22.
- 강혜선, 「김려 한시의 개성, 인정(人情)의 발견과 형상화 방식 - 『감담일기(坎窞日記)』의 증별시(贈別詩)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9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3.
- 송지현, 「『서유록(西游錄)』 소재(所在) 한시(漢詩)에 나타난 한계(韓溪) 이승희(李承熙)의 문명의식(文明意識)」, 『영주어문』 53, 영주어문학회, 2023.

일기 내에 한시가 수록된 것이기 때문에, 일기를 연구하면서 그 특징 중 일부로 한시가 언급된 경우,⁶⁾ 한시를 연구하면서 연구 대상 한시 중 일부로 일기

6) 정창권, 「『미암일기』에 나타난 송덕봉의 일상생활과 창작활동」, 『어문학』 78, 한국어문학회, 2002; 윤성훈, 「『操省堂日記』를 통해 본 17세기 초 영남 사족의 일상 속의 문화생활」, 『한문학논집』 35, 근역한문학회, 2012; 김미선, 「『艱貞日錄』의 기록 성향과 특징」, 『한국문학

소재 한시가 들어간 경우도 있다.⁷⁾ 본 논문에서는 일기 소재 한시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것만 살펴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본 연구의 대상에 넣지 않았다. 일기와 관련이 깊은 산문 속 한시를 연구한 경우도 있지만,⁸⁾ 이 경우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일기 소재 한시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학위논문 1편을 포함해 19편을 확인하였다. 이중 박준원의 논문은 제목에 한시가 드러나지 않지만, 3장의 제목이 ‘유배의 여정과 한시의 창작’, 4장의 제목이 『감담일기』 소재 한시의 분석’으로, 『감담일기』 소재 한시를 연구한 논문이다. 2016년에 발표된 이영숙 논문의 제목에서는 일기가 드러나지 않지만, 부제에 언급된 ‘108를 시’는 『간정일록』에 수록된 한시이다. 조용호의 논문은 정유재란 ‘포로실기’ 속 한시에 대한 연구이지만, 실기 중 일기 형식인 부분에 수록된 한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른 논문들은 제목만 보아도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임을 알 수 있다.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이병찬·박우훈이 대마도일기 내에 있는 수창시를 연구한 논문을 2004년 발표한 것으로 시작으

연구; 5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7; 이미진, 「안동의 어느 刑役所에 보낸 메시지 - 『西谿集刊役日錄』의 편지와 한시를 중심으로, 『영남학』 71, 영남문화연구원, 2019; 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문학교육적 활용, 『동아인문학』 52, 동아인문학회, 2020; 김미선, 「소승규 「유봉래산일기」의 유람 여행 글쓰기와 문학교육적 의미, 『동양학』 8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1; 김미선, 「『서행록』의 여행 글쓰기 연구, 『서강인문논총』 64,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등.

- 7) 강혜선, 「조선 후기 한시 속의 일상의 양태와 의미 - 김려의 한시를 대상으로, 『한국한시연구』 15, 한국한시학회, 2007; 문희순, 「16세기 여성지식인 德峯 宋鍾介 문학의 특징과 의의, 『역사학연구』 44, 호남사학회, 2011; 강혜선, 「조선 후기 유배 한시의 서정성 - 시 양식에 따른 서정의 표출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25, 한국한시학회, 2017 등.
- 8) 전재강, 「熱河日記 所載 挿入詩의 性格과 機能, 『동방한문학』 8, 동방한문화회, 1992; 신은경, 「紀行文의 挿入詩 研究, 『동양학』 4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09; 김미선, 「『看羊錄』의 표현적 특징 고찰, 『영남학』 5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5 등. 『얼하일기』의 한시는 다른 사람의 한시를 삽입한 경우가 많으며, 일기 형식 부분이 아니라 시화 같은 형식에 수록된 경우가 많아 연구 대상에 넣지 않았다. 『간양록』의 한시는 일기 형식 부분에 수록되어 있지만, 이 논문은 상소, 견문록 등 『간양록』 내 다른 형식 부분도 함께 분석한 것이기에 연구 대상에 넣지 않았다.

로, 2000년대 2편만이 발견되었다. 이후 2010년대 10편, 2023년 5월까지인 2020년대 7편으로 발표 논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연구가 많이 활성화 된 것은 아니다. 연구 시기가 짧고,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시기별 연구 특징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는 시기순이 아니라 대상 일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2) 대상 일기와 연구 내용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19편의 논문을 확인하였다. 19편의 논문에서 연구 대상이 된 일기는 모두 17종으로, 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앞서 1절에서는 논문 발표 시기순으로 연구 현황을 간략히 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대상 일기를 시기순으로 정리하고 연구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 일기 소재 한시 연구의 대상 일기

순번	일기	저자	시기	논문 ⁹⁾	비고
1	포로실기 (捕虜實記) 5편	강항(姜沆, 1567~1618) 외	1597년 ~1600년	조용호 (2019)	• 정유재란 때 포로로서 일본에 다녀왔던 사람들 의 실기 5편 중 일기 형 식 부분.
2	모당일기 (慕堂日記)	손처눌(孫處訥, 1553~1634)	1600년 ~1634년	이미진 (2021)	• 중간에 누락 부분 포함 하여 총 25년 7개월간의 기록. • 일기에서 작시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작품 중 문 집에 수록되지 못한 한 시가 125수임.

9) 논문 제목을 비롯한 서지사항은 이미 제시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자명과 발표 연도만 표기하였다.

10) '비고' 부분은 '논문' 부분에 제시된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다만 『간정일록』의 한시 수량은 김미선 논문 『『艱貞日錄』의 기록 성향과 특징』(『한국문학연구』 54, 동

순번	일기	저자	시기	논문 ⁹⁾	비고
3	풍악록 (楓嶽錄)	이경석(李景奭, 1595~1671)	1651년	채지수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 • 『백헌집(白軒集)』 내에 수록. • 52수의 한시 수록.
4	청대일기 (淸臺日記)	권상일(權相一, 1679~1759)	1702년 ~1759년	정은진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58년 동안의 기록. • 164수의 한시 수록. 이중 121수가 문집에 실리지 않음.
5	역중일기 (曆中日記)	최흥원(崔興遠, 1706~1786)	1735년 ~1786년	정환국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여 년간의 기록. • 15편 20수 수록. 이중 4편은 문집에 실려 있으며 나머지 11편은 문집에 실리지 않음.
6	서행록 (西行錄)	송정악(宋廷岳, 1697~1775) 외	1744년 ~1839년	김미선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도 고흥에 거주했던 3대(代)의 기행일기로 송정악은 17차례, 송지행은 9차례, 송석년은 10차례의 여행을 일기로 기록함. • 296수의 한시가 수록됨.
7	감담일기 (坎窞日記)	김려(金鑪, 1766~1822)	1797년	박준원 (2008) 강혜선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경도 부령으로 유배 가는 과정과 부령에 도착한 일 기록. • 54수의 한시 수록.
8	간정일록 (艱貞日錄)	김령(金纒, 1805~1865)	1862년 ~1863년	이영숙 (2015) 이영숙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도 임자도에 유배되었던 일을 기록. • 147수(김령의 한시 139수, 타인의 한시 8수)의 한시 수록.¹⁰⁾
9	자인총쇄록 (慈仁叢瑣錄)	오형묵(吳弘默, 1834~1906)	1888년 ~1889년	김남규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도 자인현감 시절의 일기. • 176수(절구 77수, 율시 64수, 고시 33시, 가행 1수)의 한시 수록.
10	고성총쇄록 (固城叢瑣錄)	오형묵(吳弘默, 1834~1906)	1893년 ~1894년	박규택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도 고성부사 시절의 일기.

순번	일기	저자	시기	논문 ⁹⁾	비고
11	유봉래산일기 (遊蓬萊山日記)	소승규(蘇昇奎, 1844~1908)	1897년	김미선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 • 『난곡유고(蘭谷遺稿)』 내에 수록. • 82수(소승규의 한시 29수, 타인의 한시가 53수)의 한시 수록.
12	자암일록 (紫巖日錄)	노상직(盧相稷, 1856~1931)의 문생	1899년 ~1901년	김소연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상직이 자암초려(紫巖草廬)에서 강학을 하던 당시 문생들이 강학에 대해 남긴 기록. • 559수의 한시 수록.
13	원유일록 (遠遊日錄)	김영근(金永根, 1855~1934)	1906년	문희순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간도로 이주했던 일을 기록. • 234수의 한시 수록.
14	대마도일기 (對馬島日記) 5편	임병찬(林炳瓚, 1851~1916) 외	1906년	이병찬· 박우훈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마도에 유배되었던 사람들이 남긴 일기 5편.
15	백하일기 (白下日記)	김대락(金大洛, 1845~1914)	1910년 ~1914년	김윤규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만주로 이주했던 일을 기록. • 200수 가량의 한시 수록.
16	서유록 (西游錄)	이승희(李承熙, 1847~1916)	1913년	송지현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으로 이주해 봉천에 있던 중 북경과 곡부에 다녀온 일을 기록. • 『대계집(大溪集)』 내에 수록. • 91수의 한시 수록.
17	요행일기 (遼行日記)	김사진(金思鎭, 1878~1954)	1917년	한길로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봉천으로 이주했던 일을 기록. • 105수의 한시 수록.

임진왜란기 포로실기는 강항의 『간양록(看羊錄)』, 노인(魯認, 1566~1622)의 『금계일기(錦溪日記)』, 정경득(鄭慶得, 1569~1630)의 『만사록(萬死錄)』, 정희

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7, 134~136쪽)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 제시된 수량으로 작성하였다.

득(鄭希得, 1575~1640)의 『월봉해상록(月峯海上錄)』, 정호인(鄭好仁, 1579~?)의 『정유피란기(丁酉避亂記)』 등 5편이 전해진다. 모두 정유재란 때인 1597년 피랍되었다가 2~3년 후 돌아온 일을 기록하고 있다. 5편 모두 일기 형식을 포함하고 있는데, 조용호는 ‘피로(被擄) 전후에서 일본 내 거류지 도착일까지’, ‘일본 역류 시기’, ‘석방(탈출)에서 환국일까지’로 나누어, 일기 내 한시를 대상으로 시·공간의 변화에 따른 작자의 의식 변화를 파악하였다. 포로살기 속 한시 중 『월봉해상록』에 수록된 작품이 가장 많고 연구도 이루어졌지만, 한시가 일기 내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모여 편집되어 있다. 조용호는 일기 형태의 글에 포함된 시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는데, 실기에 포함된 시에서 화자의 기억이 가장 적게 굴절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월봉해상록』을 설명하되, 한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손처눌의 『모당일기』는 25년이 넘긴 기간을 기록한 생활일기이다. 생활일기 속에는 일상생활 중 작시 상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미진은 『모당일기』에 나타난 주요 작시 장면과 한시 짓기의 의미를 논문에서 살폈다. 주요 작시 장면은 ‘경물에 대한 감정 담아내기’, ‘특정 저작 및 사건에 대한 견해 쓰기’, ‘유람 및 만남의 자리에서 짓기’, ‘이별을 기념하며 짓기’, ‘사례 차원에서 짓기’, ‘증답 및 화답 차원에서 짓기’ 등 6가지를 제시하였고, 한시 짓기의 의미는 ‘일상의 기록 행위’, ‘교유와 소통의 도구’ 등 2가지를 제시하였다.

권상일의 『청대일기』, 최홍원의 『역중일기』도 생활일기로, 50년이 넘는 긴 기간의 일상생활이 담겨 있다. 정은진은 『청대일기』 속에 담긴 문학 논평, 한시, 산문의 현황을 살피고 전체적인 한시의 내용과 특징을 ‘청년시절 포부와 학적 지향’, ‘관직생활의 비화(秘話)와 사족(士族)의 위민(爲民)의식’, ‘오령(吾嶺)의식과 탐승(探勝) 기록’, ‘이별과 죽음의 형상화’로 나누어 살폈다. 정환국은 『역중일기』 소재 한시가 문집에도 수록되었는지 비교 하였고, ‘고녀와 성찰이라는 자기서사의 산물’로 접근하면서 한시를 살펴보았다. 긴 시간 동안 작성된 생활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선비가 일상 속에서 한시를 짓는 상황의 전체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이경석의 『풍악록』은 1651년 9월 17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 유람을 기록한 것으로, 유람 중 작시한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채지수는 이 한시가 다양한 정감과 의문을 표출하고, 상상력을 통한 낭만적 묘사를 한다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 차례의 유람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일기의 기간이 20일도 되지 않을 만큼 짧지만, 유람이라는 특별한 경험 속에서 다양한 한시가 창작되었다.

소승규의 『유봉래산일기』도 변산에 대한 한 차례의 유람을 기록한 것으로, 1897년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의 일기가 담겨 있다. 김미선은 일기 속 한시 현황을 제시한 후, 산문 서술에 없는 풍경도 묘사하여 변산 지역을 풍부하게 담는 점, 변산 지역에 대한 타인의 시각을 담아 서술의 신뢰성을 높인 점, 변산 지역 명승지에 시선을 멈추게 하고 명승지를 부각시킨 점, 변산 유람 여행 전체를 종합하고 여운을 남긴 점을 그 특징으로 들었다. 그리고 『유봉래산일기』를 통해 여행 중 작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유봉래산일기』 속 한시가 변산 지역 한시 발굴 및 명승지 연구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서행록』은 진라도 고흥에 거주했던 3대(代)가 여행했던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1744년부터 1839년까지 약 100년간 36차례의 여행을 담고 있다. 김미선은 각 여행별 한시의 현황을 살피고, 전체적인 한시의 특징으로 ‘여정의 고난과 여행객의 수심’, ‘사람들과의 교류와 이별’, ‘여행길의 풍경과 유람’, ‘선조 현양에 대한 의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행록』을 통해 조선후기 여행객의 한시 창작 상황을 파악하고 기행시를 발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려의 『감담일기』와 김령의 『간정일록』은 모두 유배일기이다. 김려는 강이천(姜彝天, 1768~1801)의 비어사건(飛語事件)에 연루되어 유배를 가게 되었고, 김령은 단성농민항쟁을 주도한 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박준원은 유배의 여정과 날짜별 한시 창작 현황을 살핀 후, 『감담일기』 소재 한시를 ‘유배의 고통과 울분’, ‘하층민의 재발견과 인식의 전환’, ‘북방의 자연과 풍토’, ‘선현의 유적에 대한 찬탄’ 등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강혜선은 『감담일기』 소재 한시 중 증별시 3수를 대상으로 인정(人情)의 발견과 형상화 방식을 분석하였다. 두 연구자는 한시 분석을 통해 김려의 문학성을 높이 평가했다.

『간정일록』에 대해서는 이영숙이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2015년에 발표한 첫 번째 논문에서는 『간정일록』 전체의 작시 양상을 살피고, 한시에 나타난 저자 김령의 면모를 ‘온유둔후(溫柔敦厚)한 가장(家長)’, ‘부조리한 현실을 개탄하는 유자(儒者)’, ‘고뇌를 타개해 가는 지식인’으로 나누어 살폈다. 그리고 2016년에 발표한 두 번째 논문에서는 『간정일록』 1862년 10월 17일에 수록된 108률 시 한 수를 대상으로, 단성농민항쟁의 원인과 과정, 김령의 의식세계를 살폈다.

오형목은 정선군수, 자인현감, 고성부사를 비롯한 여러 지방관을 지내면서 각 부임지에서 『정선총쇄록(旌善叢鎖錄)』, 『자인총쇄록(慈仁叢鎖錄)』, 『함안총쇄록(咸安叢鎖錄)』, 『고성총쇄록(固城叢鎖錄)』, 『지도총쇄록(智島叢鎖錄)』, 『여수총쇄록(麗水叢鎖錄)』 등 일기를 남겼다. 김남규는 이 중 『자인총쇄록』 소재 한시를 대상으로 오형목의 시세계를 ‘애민의식’, ‘가족애’, ‘교유와 서정’, ‘풍속과 세태’로 나누어 살폈다. 박규택은 『고성총쇄록』 소재 한시를 대상으로 날씨를 정치생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는 『고성총쇄록』 한시 중 날씨와 관련이 깊은 것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한시의 전체적인 현황이나 면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자암일록』은 노상직의 문하에서 강학을 하던 문생들이 지은 일기로, 559수의 많은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김소연은 노상직의 서당 운영과 시 교육 등 창작 배경을 먼저 살핀 후, 이 한시에 나타난 강학문화를 파악하였고, 강학문화가 지니는 의미를 제시하였다. 논문에서 파악한 강학문화는 ‘은일(隱逸)을 통한 독서생활(讀書生活)’, ‘강회(講會)를 통한 동류지락(同類之樂)’, ‘유식(遊息)을 위한 풍류활동(風流活動)’, ‘수양(修養)을 위한 공간명명(空間命名)’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일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삶을 담은 일기 속 한시를 연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20세기 초반 일기 속 한시는 모두 일제의 억압과 관련이 깊다. 김영근의 『원유일록』, 김대락의 『백하일기』, 김사진의 『요행일기』는 일제를 벗어나 중국으로 이주했던 일을 기록한 것이고, 이승희의 『서유록』은 중

국으로 이주해 있던 중 북경 등 중국의 다른 지역을 다녀왔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연구에서는 먼저 여정을 정리한 후, 한시의 내용적 특징, 한시에 담긴 당대 저자의 내면 등을 파악하였다.

문희순은 『원유일록』 소재 한시의 특질로 ‘험난한 원유의 여정과 고난’, ‘일제의 만행과 울분 토로’, ‘위척존양(衛斥尊攘)의 의리’, ‘그리움과 애련의 가족애’, ‘궁핍과 부유의 신세한탄’, ‘변속(變俗)의 세태 탄식’을 제시하였고, 김윤규는 『백하일기』 소재 한시에 나타난 지향과 좌절로 ‘굳은 의지와 광복의 소망’, ‘가족의 가치에 대한 애착과 부담’, ‘급격한 변화와 반응’, ‘노쇠로 인한 무력감’, ‘광복의 아득함에 대한 자탄’을 제시하였다. 한길로는 『요행일기』 소재 한시에 나타난 이역 생활과 시정(詩情)의 면모로 ‘고독한 경계인의 내면과 고단한 이산의 현실’, ‘현지인들과의 교류에서의 우의(友誼) 표출’, ‘고국에 대한 향수와 해방을 위한 서원(誓願)’을 제시하였고, 송지현은 『서유록』 소재 한시에 나타난 문명의식(文明意識)으로 ‘단군과 기자에 대한 고토의식(故土意識)과 자존의식(自尊意識)’, ‘서구화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제시하였다.

대마도일기는 일제에 대항하여 의병활동을 하다 대마도에 유배되었던 사람들이 남긴 일기이다. 이병찬과 박우훈은 여러 편의 대마도일기를 조사하고, 5편의 일기 속 수창시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5편의 대마도일기는 독립운동사 자료집에 있는 임병찬의 『대마도일기』, 임병찬의 문집 『둔헌유고』 내에 있는 『대마도일기』, 작자가 임병찬으로 추정되는 『해외일기』, 독립운동사 자료집에 있는 유준근의 『마도일기』, 유준근의 『병오일기』이며, 수창시는 ‘최익현에 대한 존모’, ‘유배지의 소회’, ‘일본인과의 교류’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17종의 일기에 대한 19편의 논문을 확인하였다. 먼저 조선시대 일기 중 전쟁일기, 생활일기, 기행일기, 유배일기, 관직일기, 강학일기 등 다양한 일기에 담긴 한시 및 그에 대한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던 격동적인 시기 일기 속 저자의 내면을 담은 한시 및 그에 대한 연구를 볼 수 있었다.

3. 일기 소재 한시 연구의 과제

17종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19편의 연구 성과를 살펴본 결과, 일기 소재 한시의 다양성과 가치의 일면을 볼 수 있었다. 일기 소재 한시 연구는 일기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성 증대에 기여한다. 또 일기 소재 한시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많은 한시를 발굴하고, 한시 향유 과정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해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연구 대상이 된 일기는 전체 일기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연구가 최근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일기 소재 한시 연구는 연구자 개인이 진행할 수도 있지만, 국학 관련 기관이나 학술 단체에서 먼저 토대를 마련해 줄 때 연구 활성화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일기 소재 한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로, 국학 기관이나 학술 단체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였으면 하는 일기 소재 한시 연구의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연구자들에게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들이 연구 대상으로서 관심을 가지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과제를 살펴 볼 것이다.

첫째,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집(文集)이나 선집(選集)에 한시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 목차를 통해 빠르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기는 산문 서술 중간에 한시가 삽입되어 있어서, 한시의 존재 여부를 알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현황 조사를 먼저 시행하여, 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기를 조사·정리한 성과는 꾸준히 축적되고 있으며, 유산기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기 형식인 작품도 다수 포함되었다.¹¹⁾ 이러한 선행 성과를 바탕으

11) 강석근 외, 『역주 경주기행문』, 경주문화원, 2021 ;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조선시대 개인일기』 1~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2018 ; 국립수목원, 『산림정책과 산림문화역사성 규명을 위한 국역 유산기』 1~5, 한국학술정보, 2013~2016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고전운영실, 『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13 - 일기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로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시행한다면, 방대한 자료이지만 대략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시범적으로 금강산, 주왕산, 지리산, 청량산에 대한 유람일기 100편을 조사한 결과 32편의 일기에서 635수의 한시를 확인할 수 있었다.¹²⁾ 한시를 수록한 32편의 일기 중 10수 이상의 한시를 수록한 일기는 다음과 같았다.

[표 2] 10수 이상의 한시를 수록한 유람일기 예시

순번	일기	저자	시기	한시 수량	비고
1	유주방산록 (遊周房山錄)	신즙(申楫, 1580~1639)	1604년	10	• 주왕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 • 『하음집(河陰集)』 내에 수록됨.

2011; 김대현 외, 『국역 無等山 遊山記』,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10; 김미선,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 경인문화사, 2022; 김용남, 『옛 선비들의 속리산기행』, 국학자료원, 2009; 심경호, 『산문기행 - 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오문복, 『제주도명승』, 제주문화원, 2017; 이상균, 『朝鮮時代 遊覽文化 研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이상태 외 역,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해안, 1998; 전송열·허경진 편역, 『조선 선비의 산수기행』, 돌베개, 2016; 정민 편, 『韓國歷代山水遊覽編』 1~10, 민중문화사, 1996; 정병호·최종호·이완섭 역, 『경북 동해안 산수유람기』, 한국국학진흥원, 2012; 최은주, 「조선 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2009; 황위주, 「日記類 資料의 國譯 現況과 課題」, 『고전번역연구』 1, 한국고전번역학회, 2010;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스토리테마파크 - 일기와생활(<http://story.ugyo.net/>);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http://diary.ugyo.net/>); 호남기록문화유산(<http://memoryhonam.jnu.ac.kr/>) 등.

- 12) 네 산에 대해서는 유산기를 모아 번역한 선집이 출판되어 있다. 이중 일기로 볼 수 있는 작품 100편을 조사하였으며, 대상 선집은 아래와 같다. 일기는 형식이나 분량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일기의 범주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이견이 있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실을 기록한 것’을 일기로 본 정하영의 정의처럼, (정하영, 『朝鮮朝 日記類 資料의 文學史的 意義』, 『정신문화연구』 19,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27쪽) 일기의 범주를 넓게 하여 작품을 조사하였다.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편, 『금강산유람록』 1~10, 민속원, 2016~2019; 박영호·김우동 역, 『국역 주왕산유람록』 I~II, 청송군, 2013~2014; 청량산박물관 편역,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I~III, 민속원, 2007~2012; 최석기 외 역,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3~6, 보고서, 2009~2013; 최석기 외 역,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2007; 최석기 외 역, 『지리산 유람록 - 용이 머리를 숙인 듯 꼬리를 치켜든 듯』, 보고서, 2008.

순번	일기	저자	시기	한시 수량	비고
2	관동록 (關東錄)	이천상(李天相, 1637~1708)	1672년	10	• 금강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 • 『신계집(新溪集)』 내에 수록됨.
3	관동기행 (關東記行)	임홍량(任弘亮, 1634~1707)	1688년	13	• 관동 지역을 유람한 일을 기록. • 『폐추유고(敝帚遺稿)』 내에 수 록됨.
4	두류록 (頭流錄)	홍삼우당(洪三友堂, 1848~?)	1887년	13	• 지리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 • 『삼우당집(三友堂集)』 내에 수 록됨.
5	유청량산록 (遊淸涼山錄)	황서(黃曙, 1554~1602)	1582년	16	• 청량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 • 『회산세고(檜山世稿)』 내에 수 록됨.
6	금강일기 (金剛日記)	김창석(金昌錫, 1652~1720)	1706년	45	• 금강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 • 필사본으로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에 DB 구축됨.
7	풍악록 (楓嶽錄)	이경석(李景奭, 1595~1671)	1651년	53	• 금강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 • 『백현집(白軒集)』 내에 수록됨.
8	금강도로기 (金剛途路記)	이하진(李夏鎭, 1628~1682)	1664년	59	• 금강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 • 필사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됨.
9	풍악록 (楓岳錄)	윤휴(尹鑄, 1617~1680)	1672년	67	• 금강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 • 『백호전서(白湖全書)』 내에 수 록됨.
10	유두류록 (遊頭流錄)	박래오(朴來吾, 1713~1785)	1752년	96	• 지리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 • 『이계집(尼溪集)』 내에 수록됨.
11	동유록 (東遊錄)	이서(李澍, 1662~1723)	1700년	189	• 금강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 • 『홍도유고(弘道遺稿)』 내에 수 록됨.

이외 한시 1수를 수록한 유람일기가 7편, 2수를 수록한 유람일기가 5편, 3수를 수록한 유람일기가 3편, 4수를 수록한 유람일기가 2편, 6~9수를 수록한 유람일기가 각 1편씩이었다. 이러한 현황을 제시한다면 각 산에 대한 기행시를 연구할 때 중요 자료로 일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기 소재 한시 연구가 이미 이루어진 작품들을 보면 일기가 저자의 한시를 전하는 대표적 자료인 경우가 있다. 『서행록』을 남긴 송정약·송지행·송석년, 『간정일록』을 남긴 김령은 문집이 별도로 남아있지 않아, 일기를 통해서 저자의 한시를 확인할 수가 있다. 또 일기 속에는 저자 외 다른 사람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기도 하는데, 소승규의 『유봉래산일기』에는 유람을 함께한 김은학(金殷學), 황치경(黃致敬)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김은학 27수, 황치경 22수로, 저자인 소승규 29수와 큰 차이가 없다. 이들은 전북지역 문인들로 문집이 남아 있지 않아, 소승규의 일기를 통해 그 한시를 볼 수가 있다.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문집은 없지만 일기에 한시가 전해지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기 관련 DB에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인터넷이 발달된 현대에는 DB를 통해 정보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일기에 대한 DB도 인터넷에 구축되고 있는데, 이러한 DB 구축 시 한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연구자들이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기에 대한 DB로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와 ‘스토리테마파크 - 일기와생활’이 대표적이다.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에는 일기 작품별 이미지, 해제, 번역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스토리테마파크 - 일기와생활’에는 일기 속 이야기 소재가 주제별로 제시되고 있다.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작품들을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에서 확인해 본 결과, 손처눌의 『모당일기』, 권상일의 『청대일기』, 최홍원의 『역중일기』, 소승규의 『유봉래산일기』, 김대략의 『백하일기』에 대해서 DB가 구축되어 있었다. 그런데 5편에 대한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 해제 중 한시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은 『청대일기』와 『유봉래산일기』뿐이었다.

1702의 일기에는 첫머리에 큰달 또는 작은달이라고 표시하여 한 달의 일수가 29일인지 30일인지를 구분하고, 기상변화도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 또 저자가 공

부하는 유생이라 주로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대승사(大乘寺)와 김룡사(金龍寺) 등에 가서 속성으로 공부하는 이야기와 부친과 저자가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선산이나 안동 또는 한양으로 갔지만 낙방한 이야기 등이 있으며, 당파가 남인이기 에 정치적으로 소외되는데 따른 느껴온 마음을 적고 있다. 일기 중간 중간에 과거 시험 연습용으로 쓴 시와 순간순간의 소회를 읊은 시들이 제법 된다.¹³⁾

『유봉래산일기(遊蓬萊山日記)』는 소승규(蘇昇奎 ; 1844~1908)와 동운(桐雲), 소초(小樵) 세 사람이 1897년에 변산반도를 여행하고 기록한 것이다. 꿈에 신선을 만나 봉래산을 여행하는 꿈을 꾸고 여행을 하고 싶은 감흥이 일어나자 동운, 소초 등과 4월 14일부터 5월 1일까지 호남의 변산을 여행하면서, 하루 동안의 이동거리와 숙박한곳 등을 기록하였으며 김유신유적비나 사찰, 암자 등 명승고적을 둘러 볼 때에는 세 사람이 항상 시를 한수씩 지어 기념으로 남겼으며, 우금암이나 월명암, 낙조대 등등에서는 명칭의 유래와 시를 지어 기념하고, 내소사에서는 승려와 주고받은 시와 당나라 소장군이 방문한 내력 등을 기록하였다. 세 사람이 창수한 시가 너무 많아 따로 시집으로 편집해도 될 정도이다. 이 일기는 난곡 소승규의 시문집인 『난곡유고(蘭谷遺稿)』에 실려 있다.¹⁴⁾

위의 인용문은 모두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의 해제로, 첫 번째 인용문은 『청대일기』 해제 중 일부이고, 두 번째 인용문은 『유봉래산일기』 해제의 전체이다. 첫 번째 인용문에서는 한 문장으로 한시에 대해 설명한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짧은 해제의 대부분이 한시에 집중한 설명임을 볼 수 있다. 분량이나 설명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두 해제를 통해서는 한시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모당일기』, 『역중일기』, 『백하일기』에 대한 해제에서는 한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백하일기』에는 200수 가량의 많은 한시가 있는데, 이 사실을 몰라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호남지역 일기에 대해서는 ‘호남기록문화유산’ 하위 ‘일기자료’ 부분에 이미

13) https://diary.ugyo.net/dir/heje?dataId=ACKS_DY_0050104&gubun=SJ 검색일 : 2023. 6. 11.

14) https://diary.ugyo.net/dir/heje?dataId=ACKS_DY_00500353_0010&gubun=KW 검색일 : 2023. 6. 11.

지, 해제, 번역 예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의 『서행록』 해제에는 ‘벗과 함께 지은 한시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시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있으나, 『간정일록』 해제에는 한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최근 ‘호남 국학 종합 DB’¹⁵⁾ 운영을 시작하여, 4개 분야 중 하나로 ‘일기’가 있고, 『서암일기』, 『서행록』 등 2편의 일기에 대한 DB만 탑재되어 있다. 일기 수량은 적지만 해제가 자세하며, 한시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기 DB 구축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기 DB를 구축할 때, 공통적으로 해제의 마지막 부분에 일기 내에 수록된 문학 작품, 특히 한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연구자들이 일기 속 한시를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스토리테마파크 - 일기와생활’의 일기 속 이야기 소재 분류에 한시와 관련한 항목은 없는 상황이다. 이야기 소재는 크게 ‘테마스토리’와 ‘인물스토리’로 나뉘며, ‘테마스토리’는 다시 ‘가정’, ‘경제’, ‘공동체’, ‘근대화와 식민지의 시대’, ‘나라의 정치’, ‘외교와 사행’, ‘전쟁, 혼란의 기록’, ‘풍류와 놀이, 여행의 기록들’, ‘학문과 과거’ 등 9개 항목, ‘인물스토리’는 ‘관리’, ‘양반’, ‘여성’, ‘왕실’, ‘외국인’, ‘중인’, ‘하층민’ 등 7개 항목으로 나뉜다. 그리고 각 항목의 하위에는 다시 2개~12개의 소항목이 있다. 소항목 아래 이야기 소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시 관련 이야기 소재가 있지만, 찾는 것이 쉽지 않다.

1611년 3월 17일. 얼마 전 성균관 관직에서 파직을 당한 고인계는 울적한 마음을 달랠 겸 친구들과 유람을 나섰다. 경북궁 옛터를 살펴보고, 이어서 북한산에 올라 탕춘대를 구경하기로 한 것이다. 오여용, 손계진, 김이화와 함께 길을 나섰다. 얼마 전 임진년의 왜적들로 불타버린 경북궁은 쓸쓸한 자취만 남아 있었고, 탕춘대 주변 산에는 꽃과 잡초, 작은 개울과 편평한 바위 등이 호적하고 쓸쓸하여 제법 풍취가 있었다.

한동안 유람을 마친 고인계와 친구들은 널찍한 곳에 둘러앉아 술병을 열고 잔

15) 호남 국학 종합 DB(<https://www.hilks.or.kr/>)

을 주고받았다. 술기운이 어느 정도 오르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를 짓기로 하였다. 탕춘대 세 글자로 운자를 삼아 짓기로 하였는데, 고인계는 ‘대(臺)’ 자를 뽑았다. 잠시 눈을 감고 시상을 떠올리던 고인계는 이내 붓을 들어 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세속의 회포 참으로 풀기 어려워	塵中懷抱苦難開
우연히 동풍을 따라 교외로 나왔네	偶逐東風出郭來
물가 언덕의 화초 느낌이 구경할 만하고	汀草岸花宜晚賞
맑게 흘러 도는 물 잔 띄우기 좋다네	清流曲水好傳杯
만 리 밖 떠돌며 부질없는 벼슬살이	身遊萬里仍浮宦
인간사 천년 흘러도 옛 대는 그대로	事往千年有古臺
취한 몸 저물녘 구름 돌아가는 길에	醺酊暮雲歸去路
한 구역 신선 세계 거듭 돌아본다네	一區仙界首重回

이렇게 시를 짓고 한참을 술잔을 돌리던 고인계와 친구들은 저녁 무렵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다. 고인계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경행의 집에 들러 그를 찾아 보고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¹⁶⁾

위는 ‘테마스토리’의 ‘공동체’ 하위 6개의 소항목 중 ‘사람들과의 교류와 어울림’ 부분에 있는 이야기 소재이다. 730개의 이야기 소재 중 690번에 ‘경복궁 옛터를 유람하고 시를 한 수 읊다’라는 제목으로 위 내용이 담겨 있다. ‘테마스토리’의 ‘풍류와 놀이, 여행의 기록들’ 하위 5개의 소항목 중 ‘유흥의 기록’에도 ‘선생님의 호로 시 짓기’라는 제목으로 3수의 한시가 담긴 이야기 소재가 실려 있기도 하다. 그런데 소항목 아래 몇 백 개의 이야기 소재 중에 이러한 한시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 보니, 찾는 것이 쉽지 않다. ‘테마스토리’는 워낙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 ‘인물스토리’ 하위 ‘양반’의 소항목으로 ‘한시를 짓는 양반’과 같은 항목을 넣어 준다면, 한시 관련 이야기 소재를 쉽게 찾아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6) http://story.ugyo.net/front/sub01/sub0103.do?chkId=S_SSK_B005 검색일 : 2023. 6. 11.

셋째, 일기 소재 한시 관련 주제별 학술대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학술대회는 소통의 장으로, 학술대회장에서 발표와 토론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해당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또 지정된 주제로 학술대회를 하는 경우 해당 주제의 논문이 여러 편 발표되어, 연구가 활성화되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 소재 한시 관련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서행록』의 경우 한국학호남진흥원이 2022년 6월 9일에 ‘서행록을 통해 본 여산 송씨 3대의 선양 정신과 학술적 의의’라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기존에 이 일기에 대해서는 2편의 논문이 있었는데,¹⁷⁾ 학술대회 이후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중 3편은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하여 학회지에 게재한 것이고,¹⁸⁾ 남은 1편¹⁹⁾도 학술대회 발표자가 쓴 논문이라 학술대회를 매개로 『서행록』에 관심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일기 소재 한시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주제로 학술대회가 가능하다. 일기와 문집이 모두 남아 있는 경우, 일기 소재 한시와 문집 소재 한시를 비교하여, 어떠한 한시가 문집에 수록되는지, 문집 수록 과정에서 한시의 변개가 이루어지는 않는지 등을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 소재 한시의 문집 수록’과 같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일기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유배일기 소재 한시’, ‘유람일기 소재 한시’, ‘전쟁일기 소재 한시’와 같은 주제도 의미 있을 것이다.

17) 박미선, 「18세기 鄉班家の 묘비 건립 활동과 그 함의 - 고흥 여산송씨 가문을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38,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9 ; 박미선, 「조선 후기 紀行日記 『西行錄』의 편찬 배경과 구성」, 『역사학연구』 75, 호남사학회, 2019.

18) 김미선, 「『서행록』의 여행 글쓰기 연구」, 『서강인문논총』 64,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 김민규, 「宋廷岳(1697~1775)의 『西行錄』을 통해 본 墓碑 건립 연구」, 『미술사학』 44,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22 ; 박미선, 「조선 후기 호남 양반의 西行 경로와 여행 풍경 - 『서행록』에 나타난 여산송씨 가문 3대의 여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88, 고려사학회, 2022.

19) 김미선, 「『西行錄』 所載 한시의 현황과 특징」, 『한국시가문화연구』 50, 한국시가문화학회, 2022.

일부 개별 연구자가 일기 소재 한시를 연구하는 것으로는 연구가 활성화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과 같이 일기 연구에 기여하는 기관은 물론, 다양한 연구소, 학회에서 노력을 기울일 때,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관련 논문들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다.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고,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4. 맺음말

형식적 제한이 적고 분량이 자유로운 일기 속에는 한시, 시조, 서간, 제문 등 저자가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문학 작품이 삽입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일기가 문학 작품의 보고(寶庫)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며, 일기 소재 문학 작품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것은 한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그 과제를 제시하여, 일기 소재 한시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2편, 2010년대 10편, 2023년 5월까지인 2020년대 7편으로 발표 논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17종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19편의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 대상이 된 일기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임진왜란기 포로실기 중 일기 부분, 둘째, 생활일기인 손처눌의 『모당일기』, 권상일의 『청대일기』, 최홍원의 『역중일기』, 셋째, 기행일기인 이경석의 『풍악록』, 소승규의 『유봉래산일기』, 송정악·송지행·송석년의 『서행록』, 넷째, 유배일기인 김려의 『감담일기』, 김령의 『간정일록』, 다섯째, 관직일기인 오횡목의 『자인총쇄록』과 『고성총쇄록』, 여섯째, 강학일기로 노상직의 문생들이 쓴 『자암일록』, 일곱째, 20세기 초반 일제의 억압과 관련하여 중국에 간 사람들의 일기인 김영근의 『원유일록』, 김대락의 『백하일기』, 김사진의 『요행일기』, 이승희의 『서유

록』, 여덟째, 일제에 대한 의병들의 유배일기인 대마도일기 5편이 그것이다.

일기 소재 한시 연구는 일기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성 증대에 기여한다. 또 일기 소재 한시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많은 한시를 발굴하고, 한시 향유 과정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 성과를 통해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연구 대상이 된 일기는 전체 일기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 소재 한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로, 일기 소재 한시 연구의 과제를 정리하였다.

첫째,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집(文集)이나 선집(選集)에 한시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 목차를 통해 빠르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기는 산문 서술 중간에 한시가 삽입되어 있어서, 한시의 존재 여부를 알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현황 조사를 먼저 시행하여, 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기 관련 DB에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인터넷이 발달된 현대에는 DB를 통해 정보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일기에 대한 DB도 인터넷에 구축되고 있는데, 이러한 DB 구축 시 한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연구자들이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기 소재 한시 관련 주제별 학술대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학술대회는 소통의 장으로, 학술대회장에서 발표와 토론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해당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또 지정된 주제로 학술대회를 하는 경우 해당 주제의 논문이 여러 편 발표되어, 연구가 활성화되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 소재 한시 관련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여러 기관 및 연구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일기문학 연구, 한시문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또한 한시를 수록한 일기를 조사하고, 일기 소재 한시를 연구하여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그 시작이 되는 것으로,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전체

적인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가능성을 보는 것에 머물렀다. 추후 일기 소재 한시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석근 외, 『역주 경주기행문』, 경주문화원, 2021.
- 강혜신, 「김려 한시의 개성, 人情의 발견과 형상화 방식 - 「坎窞日記」의 贈別詩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9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3.
(DOI : 10.17948/kcs.2023..98.63)
- _____, 「조선 후기 유배 한시의 서정성 - 시 양식에 따른 서정의 표출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25, 한국한시학회, 2017.
- _____, 「조선후기 한시 속의 일상의 양태와 의미 - 김려의 한시를 대상으로」, 『한국한시연구』 15, 한국한시학회, 2007.
(UCI : G704-000619.2007..15.008)
-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편, 『금강산유람록』 1~10, 민속원, 2016~2019.
-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소, 『조선시대 개인일기』 1~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2018.
- 국립수목원, 『산림정책과 산림문화 역사성 규명을 위한 국역 유산기』 1~5, 한국학술정보, 2013~2016.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고전운영실, 『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13 - 일기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1.
- 김남규, 「『慈仁叢瑣錄』 소재 오횡목 한시 연구」, 『민족문화논총』 75, 민족문화연구원, 2020.
(DOI : 10.15186/ikc.2020.08.31.1)
- 김대현 외, 『국역 無等山 遊山記』,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10.
- 김미선, 「『看羊錄』의 표현적 특징 고찰」, 『영남학』 5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5.
(UCI : G704-001229.2015..57.001)
- _____, 「『艱貞日錄』의 기록 성향과 특징」, 『한국문학연구』 5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7.
(DOI : 10.20881/skl.2017..54.005)
- _____, 「『西行錄』 所載 한시의 현황과 특징」, 『한국시가문화연구』 50, 한국시가문화학회, 2022.
- _____, 「『서행록』의 여행 글쓰기 연구」, 『서강인문논총』 64, 서강대학교 인문과

- 학연구소, 2022.
(DOI : 10.37981/hjhrisu.2022.08.64.85)
- _____, 「소승규 「유봉래산일기」의 유람 여행 글쓰기와 문학교육적 의미」, 『동양학』 8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1.
(DOI : 10.17320/orient.2021..84.69)
- _____, 「소승규 <유봉래산일기> 所載 한시 연구」, 『동아인문학』 60, 동아인문학회, 2022.
(DOI : 10.52639/JEAH.2022.09.60.87)
- _____,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 『국어문학』 71, 국어문학회, 2019.
(DOI : 10.23016/klj.2019.71.71.151)
- _____,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문학교육적 활용」, 『동아인문학』 52, 동아인문학회, 2020.
(DOI : 10.52639/JEAH.2020.09.52.95)
- _____,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과 가치」, 『한국민족문화』 7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DOI : 10.15299/jk.2019.05.71.3)
- _____,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 경인문화사, 2022.
- _____, 『호남문집 所載 일기류 자료』, 경인문화사, 2018.
- 김민규, 「宋廷岳(1697~1775)의 『西行錄』을 통해 본 墓碑 건립 연구」, 『미술사학』 44,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22.
(DOI : 10.14769/jkaahe.2022.08.44.177)
- 김소연, 「『紫巖日錄』 삽입시에 나타난 講學文化와 그 의미」,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김용남, 『옛 선비들의 속리산기행』, 국학자료원, 2009.
- 김윤규, 「20세기 초 만주 망명 지식인 漢詩의 문학사적 성격 - 『白下日記』 소재 시의 경우」, 『국어교육연구』 50, 국어교육학회, 2012.
(DOI : 10.17247/jkde.2012..50.429 ; UCI : G704-002038.2012..50.016)
- 문희순, 「16세기 여성지식인 德峯 宋鍾介 문학의 특징과 의의」, 『역사학연구』 44, 호남사학회, 2011.
(UCI : G704-001257.2011..44.008)
- _____, 「景晦 金永根의 한시연구 - 강진에서 간도까지 <遠遊日錄>을 중심으로」,

- 『한국시가문화연구』 39,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UCI : G704-001062.2017..39.009)
- 박규택, 「오행목의 『고성총쇄록』 漢詩에 나타난 날씨의 정치생태학적 고찰, 『코기토』 86,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DOI : 10.48115/cogito.2018.10.86.219)
- 박미선, 「18세기 鄉班家の 묘비 건립 활동과 그 함의 - 고흥 여산송씨 가문을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38,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9.
 (DOI : 10.31929/namdo.2019.38.173)
- _____, 「조선 후기 紀行日記 『西行錄』의 편찬 배경과 구성, 『역사학연구』 75, 호남사학회, 2019.
- _____, 「조선 후기 호남 양반의 西行 경로와 여행 풍경 - 『서행록』에 나타난 여산송씨 가문 3代の 여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88, 고려사학회, 2022.
 (DOI : 10.21490/jskh.2022.8.88.291)
- 박영호·김우동 역, 『국역 주왕산유람록』 I ~ II, 청송군, 2013~2014.
- 박준원, 「『坎窞日記』 연구,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UCI : G704-001598.2008.19..022)
- 송지현, 「『西游錄』 所在 漢詩에 나타난 韓溪 李承熙의 文明意識, 『영주어문』 53, 영주어문학회, 2023.
- 신은경, 「紀行文의 挿入詩 研究, 『동양학』 4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09.
 (DOI : 10.17320/orient.2009..45.21 ; UCI : G704-000715.2009..45.010)
- 심경호, 『산문기행 - 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 오문복, 『제주도명승』, 제주문화원, 2017.
- 윤성훈, 「『操省堂日記』를 통해 본 17세기 초 영남 사족의 일상 속의 문화생활, 『한문학논집』 35, 근역한문학회, 2012.
 (DOI : 10.17260/jkdc.2012.35..9 ; UCI : G704-SER000008636.2012.35..001)
- 이미진, 「『慕堂日記』를 통해 본 慕堂 孫處訥의 한시 짓기와 그 의미, 『국학연구』 44, 한국국학진흥원, 2021.
 (DOI : 10.36093/ks.2021..44.004)
- _____, 「안동의 어느 刊役所에 보낸 메시지 - 『西谿集刊役日錄』의 편지와 한시를 중심으로, 『영남학』 71, 영남문화연구원, 2019.

(DOI : 10.36034/yncdoi.2019..71.287)

이병찬·박우훈, 「대마도일기 수창시 연구 - 최익현·임병찬·홍주의사 구인의 수창시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4, 어문연구학회, 2004.

(UCI : G704-000503.2004.44..007)

이상균, 「朝鮮時代 遊覽文化 研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이상태 외 역,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혜안, 1998.

이영숙, 「海寄翁 金櫺의 한시에 나타난 단성농민항쟁 - 108률 시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68, 동방한문학회, 2016.

_____, 「海寄翁 金櫺의 한시연구 - 『艱貞日錄』의 유배시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48,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5.

(DOI : 10.14381/NMH.2015.12.30.48.43 ; UCI : G704-001230.2015..48.001)

임기중, 『연행록 연구』, 일지사, 2002.

전송열·허경진 편역, 『조선 선비의 산수기행』, 돌베개, 2016.

전재강, 「熱河日記 所載 挿入詩의 性格과 機能」, 『동방한문학』 8, 동방한문학회, 1992.

(UCI : G704-000973.1992..8.003)

정민 편, 『韓國歷代山水遊聚編』 1~10, 민창문화사, 1996.

정병호·최종호·이완섭 역, 『경북 동해안 산수유람기』, 한국국학진흥원, 2012.

정영문, 『朝鮮時代 通信使文學 研究』, 지식과교양, 2011.

정은진, 「『청대일기』 소재 청대 권상일의 한시와 그 성격」, 『민족문화논총』 62, 민족문화연구소, 2016.

(UCI : G704-001644.2016..62.006)

정창권, 「『미암일기』에 나타난 송덕봉의 일상생활과 창작활동」, 『어문학』 78, 한국어문학회, 2002.

(UCI : G704-000112.2002.78..011)

정하영, 「朝鮮朝 ‘日記’類 資料의 文學史的 意義」, 『정신문화연구』 19,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정환국, 「18세기 대구사족 崔興遠의 시세계와 내면 - 『曆中日記』 내 漢詩와 감회표출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38, 한국국학진흥원, 2019.

(DOI : 10.36093/ks.2019..38.003)

조수미, 「조선후기 한글 유배실기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조용호, 「丁酉再亂 포로 실기 속 한시에 투영된 화자 의식」, 『한국고전연구』 4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DOI : 10.20516/classic.2019.45.133)

채지수, 「李景奭의 『楓嶽錄』 삼입시의 두 가지 양상」, 『한문고전연구』 23, 한국한문고전학회, 2011.

(DOI : 10.18213/jkcl.2011.23.1.004 ; UCI : G704-002001.2011.23.1.012)

청량산박물관 편역,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I ~ III, 민속원, 2007~2012.

최석기 외 역,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3~6, 보고서, 2009~2013.

_____,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2007.

_____, 『지리산 유람록 - 용이 머리를 숙인 듯 꼬리를 치켜든 듯』, 보고서, 2008.

최은주, 「조선 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2009.

(UCI : G704-001498.2009..30.014)

_____, 「조선시대 상소 일기자료의 실상과 가치」, 『석당논총』 34,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8.

(DOI : 10.17842/jsa.2018.72.191)

_____,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유배일기 자료의 현황과 활용 가치」, 『안동학』 19, 한국국학진흥원, 2020.

한길로, 「西洲 金思鎭의 한시에 나타난 중국 체험의 시적 정취 - 『遯行日記』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90,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22.

(DOI : 10.16959/jeachy..90.202208.40)

황위주, 「日記類 資料의 國譯 現況과 課題」, 『고전번역연구』 1, 한국고전번역학회, 2010.

_____,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스토리테마파크 - 일기와생활(<http://story.ugyo.net/>) 검색일 : 2023. 6. 11.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http://diary.ugyo.net/>) 검색일 : 2023. 6. 11.

호남 국학 종합 DB(<https://www.hiks.or.kr/>) 검색일 : 2023. 6. 11.

호남기록문화유산(<http://memoryhonam.jnu.ac.kr/>) 검색일 : 2023. 6. 11.

| Abstract |

Current Status and Tasks of Research of Sino-Korean Poems in Diaries

Kim, Mi-sun

Chonnam National Univ. Lecturer.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research status and present the tasks in studying Sino-Korean poems found in diaries. By doing so, it seeks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research on Sino-Korean poems in diaries.

Research on Sino-Korean poems found in diaries has started relatively recently, and this study confirmed the existence of 19 papers on 17 different diaries. The number of published papers has gradually increased over time, with 2 papers in the 2000s, 10 papers in the 2010s, and 7 papers up until May 2023 in the 2020s. Various diaries from the Joseon Dynasty were examined, including war diaries, daily life diaries, travel diaries, exile diaries, official diaries, and scholarly diaries, all of which contained Sino-Korean poems. Additionally, research on these Sino-Korean poems and their significance in portraying the inner thoughts of the diarists during the tumultuous period of early 20th century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was also identified.

Research on Sino-Korean poems in diaries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value and utility of diari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diaries examined for this research represent only a small portion of the entire collection. Therefore, to further promote the study of Sino-Korean poems in diaries, the following research tasks have been identified. First, a systematic

survey of Sino-Korean poems in diaries should be conducted. Second, information on Sino-Korean poems in the diaries included in the diary-related DB should be provided. Third, academic conferences by theme related to Sino-Korean poems in the diary should be held.

Key words : Diary, Sino-Korean poems, war diaries, daily life diaries, travel diaries, exile diaries, official diaries, scholarly diaries, diary DB